

2007년도 중국문화산업 10대 인물

2008-1-8 중국문화산업망

장위(张宇): 중국대외문화그룹회사 사장



2007년은 중국대외문화그룹회사의 전신이었던 중국대외연출공사 설립 50주년이자 중국대외문화그룹회사 제도 개혁 3주년인 한해이다.

세계 최대의 중국연출공급업체인 중국 대외문화그룹 사장으로서 장위는 중국문화 “대외수출”을 30년간 지켜보아 왔다. 3년간의 회사제도 개혁과정에 중국대외문화그룹은 전 세계 80여개 나라, 지역의 200여개 도시에 부동한 운영 방식을 통해 중국 공연, 예술 전시 등을 1.5만여차 진행해 왔으며 해외 주류 사회의 관중수가 3000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중국대외문화그룹은 출판, 영화, TV 3자 연합을 통해 중국 문화 “대외수출”의 3대 전략 통로 중 하나로 되었다.

2007년 말에 중국대외문화그룹회사가 주최한 2007중국공연 “대외수출” 고위층포럼에서 장위는 중국 대외문화그룹회사 50년에 대한 총결을 통해 첫 25년과 후 25년의 부동한 점을 설명했는데 첫 25년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대외수출”을 주도하였고 후 25년은 주류 상업 경로를 통해 주동적으로 국제 문화시장의 경쟁 속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총결은 기업의 문화자각성과 전략에 대한 추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었다.

장쇼밍(张晓明):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연구센터 부주임

2001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센터는 “문화청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장쇼우밍이 편집

장을 담당했다. 2007년까지 이 자료는 <문화청서: 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 <문화청서: 중국공공문화서비스발전보고>와 <문화청서: 국제무노하산업발전보고>의 “삼축정립” 구조를 형성하여 권위성 있고 실시간적인 국제 대화 플랫폼 제공을 시도하였다.

장쇼밍은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서방 발달 국가의 문화산업과 정보 산업 합류 추세를 연구했으며 콘텐츠 부족과 매체 합류 후 출현되는 도전 등 관점을 제출했다. 또



한 북경시 문화산업 "11.5"계획 연구를 주도했으며 제일 먼저 북경시는 창의산업을 발전시켜 전국 6대 문화산업 센터의 지위를 확립할 전략 사로를 제기했다.

<문화청서>는 예민한 판단의식, 넓은 이론시야로 제때에 전면적으로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중국 문화산업발전의 역사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청서와 함께 성장해 온 장소우밍도 학자

전문가로부터 공중인물로의 신분 전환을 거쳤으며 중국 문화산업 이론과 정책연구의 선도자 중 한사람으로 되었다.

양리핑(杨丽萍): 무용가



<운남영상>으로 인해 양리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대 스타로 되었다. 2007년 <장미(藏谜)>로 인해 양리핑은 철저한 무대 기적을 창조했다!

2007년 양리핑이 연출한 장족 원 생태 뮤지컬 <장미>가 전국에서 4개월간의 순회공연을 진행해 <운남영상>이후로 또 하나의 전국에 명예를 떨친 무대 예술 작품이 되었다.

천진팡(陈锦芳): 광둥쿵궈랑(孔雀廊)그룹 사장



2001년부터 자주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천진팡은 웨쥬(粤剧)를 사업의 돌파구로 삼았다. 그후의 몇 년간 제일 유명한 배우, 최고의 디지털 설비로 수천시간의 웨쥬 프로그램을 제작해 쿵궈랑(孔雀廊)으로 하여금 웨쥬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성 우세를 차지하게 하였다. 쿵궈랑이 발행한 웨쥬 음반영상제품은 중국 내륙과 홍콩, 대만 지역에서 환영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수출되고 있다.

2007년 9월, 쿵훤량회사는 문화부가 수여한 “우수수출기업상”을 받았으며 천진팡은 “국산영상음반제품수출개인공헌상”을 받았다.

쿵훤량은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2008 중국 올림픽 대형 국내외 순회공연 프로젝트 <올림픽송> 개최 권한을 받았으며 공연의 음반영상제품도 발행할 것이라고 한다.

위이라이(魏来): 중카세기 (中卡世纪) 사장



위이라이가 2005년에 중국 국내 첫 전문 동만운영기구인 중카세기를 설립할때부터 그의 남다른 패기를 보여 주었다. 위이라이는 카툰독서, 애니메이션학원, 아동음반영상 체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단일 브랜드 소아도서 출판 최고 기록을 창조하였다. 그는 tv프로그램 발행, 동만도서 출판, 파생상품 개발, 해외 판권 합작, 뉴미디어 응용 등 5대 판매 시스템의 종합적 구축에 종사하고 있다.

2007년 위이라이와 중카세기는 독특한 영리모델로 국제 자본의 주목을 받아 지기창투, 운방투자, 미국Miven투자 등 3개 기업의 총 1000만달러에 달하는 모험 투자를 얻게 되었다. 2007년말 중카세기는 또 “적은 원가로 대운을 시도”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상해 문광신문전매그룹과 합작하여 공동으로 동만 프로그램 <피리러판티엔(霹靂乐翻天)>을 제작해 중국 동만산업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해 나갔다.

모종 의미에서 위이라이는 중국 동만산업화 발전의 미래를 개척하고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홍레이(康洪雷):감독

<사병투격 (士兵突击)> 이 네글자 만으로 충분히 이 작품의 감독인 강홍레이를 2007년 모든 문화 인기 순위에 오르게 할 수 있었다.

현재 드라마 산업 시장에 소재가 단일하고 내용이 유사한 산업 환경속에서 2006년에 제작 완료되고 2007년에 방송된 이 작품은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난 1년간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 작품으로 인해 심지어 많은 관중들의 인생궤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존엄이란 단어에 대해 심각히 느끼게 하였다.



장창(张强): 문화산업(중국)협력체 비서장



장창이 건립한 “문화산업(중국)협력체”는 중국 문화산업시장 발전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산업 자본의 융합에 조건을 창조해주어 문화산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문화산업(중국)협력체의 건립은 국가의 “11.5”문화발전 계획의 중요한 정신에 호응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했다. 복합형 인재가 부족한 것이 현재 중국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병목이며 문화창의 인재와 시장의 융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국가 문화산업인재교육기지의 건립은 바로 이와같은 광활한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다. 국가급 인재배양, 시범인도, 창조연구를 통일한 인재 배양 플랫폼

으로서 국가문화산업 인재교육기지는 장창의 주도하에 전국 범위내에서 인재교류의 국제 교량을 구축하여 중국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했다.

장창은 중국 국내에서 제일 먼저 문화산업 프로젝트 운영과 이론연구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문화산업의 발전 추세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정확하다. 국가 문화산업인재교육기지의 부주임으로서 그의 주도하에 수많은 창의산업인재들이 업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장창은 문화산업 협력체의 조직자 및 영도자 중 한사람으로서 문화산업 자원을 정합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베이촨(張北川): 사천성영화회사 사장



사천성 영화회사 및 그 소속인 태평양극장체인망은 2007년에 사천 영화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21개로 확장했으며 총 자산이 3.7억위엔의 규모를 갖추었다. 한 개 성급 영화회사가 어떻게 전국 시장에서 앞자리를 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장베이촨과 갈라놓을 수 없다.

2006년 티켓 판매수익이 억위엔을 돌파한 이후 2007년 사천영화회사의 티켓 판매수익은 1.2억위엔에 달했다. 치열한 영화 바영시장속에서 장베이촨은 사천영화회사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두 개 전선에서 동시에 동력을 가했다. 장베이촨은 도시와 농촌을 통일로 건설하는 신 농촌이념을 세워 농촌 영

화시장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이는 장베이촨으로 하여금 서부지역 심지어 전국 영화시장에서의 선도자가 되게 하였다.

이옥란(李玉兰): 화가



2007년 12월 17일, 송장화가촌 화가 이옥란(李玉兰)은 법원으로부터 농촌 부동산 구매계약 무효, 90일 내에 부동산 반납의 최종판결을 받았다.

1993년부터, 특히 북경 원명원 화가촌이 해산된 후 육속 예술가들이 송장에 창작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예술가들은 현지 농민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의 5배, 심지어 10배의 가

격으로 비워둔 부동산을 구매했다. 예술가들이 부단히 규모를 형성하면서 송장은 북경에서 최대의 예술가 구역으로 되었으며 2006년에는 북경시 10대 문화창의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이 급속히 오르면서 싸게 팔았던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이번 소송안건이 있게 된 것이다.

송장농민 부동산 소송안은 도시 교외개발과 문화산업 기지 건설이 예술가 클러스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준다.

예술가는 송장 예술클러스터의 자연형성을 주도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에 창작과 생활장소를 구매할수 있는것 또한 많은 예술가들이 송장에 남아있게 된 원인이며 송장 화가촌이 형성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의 창작과 생활에 유리한 발전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성과 지역 계획의 조화 그

리고 문화 경제 정책 등 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스위주(史玉柱):거인(巨人)인터넷 사장



2007년 중국 온라인게임 업계에는 킹소프트의 레이쥔(雷军), 완미시공(完美时空)의 츠위펑(池宇锋), 왕룽(网龙)의 유씨 형제(刘氏兄弟).....등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많다. 이 중에 스위주(史玉柱)와 그의 거인 인터넷(원명:“정도인터넷”)도 절대 놓시할 수 없다.

스위주의 비 논리적인 경영방식은 거인 인터넷을 중국 국내 온라인게임 순위 3위안에 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뉴욕 교역소에서 상장한 IT기업으로 되어 미국에서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민영기업, 그리고 중국 시장 가치가 제일 큰 온라인기업이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비 논리적인 방식이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최근 몇 년간의 불경기한 상태를 개변했으며 “국산온라인게임개혁”의 구호를 실제 행동에 옮기게 하였다.